12월 7일 (월) / 약 1-5

- 내용요약: A.D. 64년 로마의 대화재를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인 A.D. 62년경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본서는 시련과 고초를 맞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격려의 메시지인 동시에 실천적 교훈서이다. 1장은 시험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통해 더욱 담대하게 시험을 감수할 것을 가르친다.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는 성도가 지녀야 할 자세(1-4절), 시험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시험의 근본 원인(13-18절), 시험을 이기고 참된 경건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 기록한다. 2장은 형제들에 대한 공평하고 편견없는 사랑으로 드러나는 참 믿음(1-13절)과 행함을 통해 마침내 입증되는 참믿음(14-26절)을 가르친다. 3장은 혀가 가져다 주는 폐해와 선생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삼갈 것과 세상적인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비교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선한 열매 맺을 것을 권한다. 4장에서는 사회적차원(교회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교훈들이 제시된다. 5장은 세상 부(富)를 향유하고 있는 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 질문: 믿음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성도가 지녀야 할 자세는?
- 생각하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 증거는 무엇인가? 만일 증거가 없다면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2:14-17절).

12월 8일(화) / 벧전 1-5

- 내용요약: 로마황제 네로에 의해 기독교회를 향한 박해의 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던 때(A.D.64년 경) 기록된 본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핍박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위해 기록되었다. 1장은 각 지역에 흩어져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을 향한 문안인사, 현재얻은 구원으로 인한 찬송, 시련과 연단을 거친 후 주어질 미래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고대하는 내용(6-12절)을 기록한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계속 성장할 것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추구하되 이방인 앞에서(11-12절), 국가권세 앞에서(13-17절), 애매히 고난을 가하는 주인 앞에서 그렇게 할 것을 가르친다. 3장에는 성도의 사회생활 가운데 중대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성도의 올바른 부부윤리에 관해 조언한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주어진 인간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됨을 가르친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는 정욕을 좇지말고 핍박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삶을 살아야 함과 때가 악하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아 성도로서 의무(근신. 기도. 사랑. 봉사 등)에 힘써야 함을 가르친다. 5장은 교회의 장로들과 일반성도들에게 중요한 몇 가지 조언을 주고 있다.
- 질문: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4장)
- 생각하기: 우리는 기도와 사랑 그리고 섬김으로써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가?(4:7-11절).

12월 9일(수) / 벧후 1-3

- 내용요약: 본서는 교회내적으로 생겨난 이단적 교사들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을 진단하고 경고한 책이다. 1장에서는 수신자들에게 문안인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성결한 생활에 정진함으로써 영적으로 진정한 성숙을 이룰 것을 언급한 뒤(2-10절), 계속적인 영적성장을 통해 최후에 완성될 천국의 복된 삶을 예시하고(11-15절) 마지막으로 성도의 영적성장에 건강한 기초가 되는 성경의 영감성과 신적기원에 관해 소개한다(16-21절). 2장은 거짓이단들의 언행이 불일치하고 부도덕한 삶을 고발하고 책망한다. 그들의 출현과 심각한 위험성(1-3절), 그들이 당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준엄한 심판의 실례들(4-9절), 거짓이단들의 각종 죄악상과 악한특성(10-19절), 거짓이단에 의한 배교(背敎)의 어리석음(20-22절)을 말씀한다. 전장에서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들의 윤리적. 영적부도덕성을 강조했다면 3장에는 거짓이단들의 교리적 오류(특히 종말론)를 파헤치고 주의 말씀에 입각한 건전한 교리를 세우는 가르침을 주고 있다.
- 질문: 거짓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2장)
- 생각하기: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외부의 죄악과 내부의 악한본성과 날마다 싸워가야만 한다.

12월 10일(목) / 요일 1-5

- 내용요약: 본서는 사도요한이 직접 체험했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기록한 '사랑의 편지' 요 '진리의 서신' 이다. 본서를 기록할 당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이단의 도전을 받고 있던 상태였다. 1장은 본서를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수신자들에게 빛 가운데 행하며 자기 죄를 자백함으로써 하나님과 참된교제를 이룰 것을 권면한다. 2장에서 요한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성부. 성자와의 빛된 교제에 기초하는 형제와의 교제를 설명하고, 교제를 방해하는 세상과의 교제를 단절할 것을 경계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인간을 어두움으로 몰아넣는 이단의 성격을 소개하고 이단을 막는방법을 가르친다. 3장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 가야 할 삶의 모습들에 관한 적극적인 권면을 주고 있다. 4장에는 하나님의 영과 마귀 영을 분별토록 가르침으로 참사랑은 참된진리에 기초할 때 가능함을 가르친다. 5장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일과 관계있음을 말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 아들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밝힌다.
- 질문: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님의 무엇을 부인했나?
- 생각하기: 우리는 죄 문제에 민감한가? 만약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죄로 인한 것임을 깨닫아야 한다(1:8-10절).

12월 11일(금) / 요이1-유1

- 내용요약: 요한이서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애를 돈독히 할 것과 영지주의이단에 경계할 것 등의 두 교훈을 축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1장은 당시 교회를 혼란시켰던 영지주의의 폐혜를 염두에 두고 교회 내적으로 진리와 사랑안에 거할 것, 거짓교사들을 경계할 것(7-11절)을 가르친다. 요한삼서는 수신자 가이오의 헌신적 봉사에 대한 사도요한의 칭찬과 권면의 메시지를 기록한다. 사도요한은 자신이 파견한 순회 전도자들에게서 기이오의 융숭하고 아낌없는 환대의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하면서 감사의 문안인사와 가이오가 진리 중에 행한 사실로 인한 사도의 기쁨(3-4절)을 밝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그네를 대접하며 특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성실히 대접할 것을 권면한다. 유다서에서 주의 형제 유다는 영지주의 이단을 준엄히 책망하고 대신 복음에 입각한 정통신앙을 강조한다. 본 서신의 기록목적을 밝히고(3-4절), 이단자들이 받을 심판과 그들을 향한 엄중한 규탄(5-16절), 이단에 직면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권면(17-23절)을 주고, 송영과 축도등을 기록하고 있다.
- 질문: 요한이서의 두 가지 핵심내용은?
- 생각하기: 교회 안에 오직 주와 주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은혜롭고 강건하게 된다.

12월 12일(토) / 계 1-3

- 내용요약: 수 많은 상징과 예언을 특징으로 하는 본서는 사도요한이 로마황제 도미티안(A.D. 81-96년) 통치 기간 중 에베소와 고린도 중간에 위치한 에게해 상의 섬인 밧모섬에서 유배생활을 할 당시 받았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종말에 관한 예언적 메시지이다. 1장은 본계시의 주체(그리스도)와 본계시의 진리성을 밝히고(1-3절), 당시 핍박에 직면해 있던 일곱교회(지상의 모든교회를 상징)에게 대한 문안인사(4-8절), 요한이 목격한 환상의 배경과 그리스도의 명령, 교회의 중심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적 환상(12-20절)등을 기록한다. 2장은 정통교리에 착념했으나 첫 사랑을 상실한 에베소교회, 궁핍하였으나 오히려 부유했던 서머나 교회, 주위에 이단문화가 팽배했으나 주께 충성했던 버가모 교회, 열심히 믿음생활을 했으나 이단을 용납한 두아디라교회에게 전달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기록한다. 3장에는 형식주의로 인해 죽은교회로 전락해 버린 사데교회, 연약하지만 충성되었던 빌라델비아교회, 부요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가난했던 라오디게아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다.
- 질문: 요한계시록은 누구에 대한 계시인가?
- 생각하기: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3:14-22절).

12월 13일(일) / 계 19-22

- 내용요약: 큰 음녀의 성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지상에서 전개된 7년 대 환난기동안의 재앙들이 모두 종결되었다. 이제 그 환난기에 각종 재앙들을 조장하고 혹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했던 원인자 곧 악의 실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만이 남겨지게 되었다. 19장은 온 세상의 심판주이신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인해 전개될 짐승의 대멸망에 관해 적고 있다. 바벨론에 내리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찬송(1-5절), 어린양의 혼인잔치(6-10절), 그리스도의 영광스런 재림(11-18절), 아마겟돈(19-21절) 등을 기록한다. 20장은 무저갱에 사단이 결박되고(1-3절) 그 사이에 천년왕국이 실현되며(4-6절), 천년이 다 찬 때에 사단이 잠깐 놓여 곡과 마곡의 전쟁을 주도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지워지고(7-10절), 끝으로 절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흰 보자 심판으로 인한 악인들의 둘째 사망에 대한 언급(11-15절)등이 소개되고 있다. 진정 이 세상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모든 악이 제거된 그위에 세워지는 메시야 왕국이다. 사단에 속한 불신사람들은 최후의 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좇아 철저히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고 말 것이다. 21장은 구질서가 모두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모습과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세밀한 묘사등을 기록한다. 마치 이사야(60. 65장)와 에스겔(40-48장)이 보았던 메시야 왕국에 대한 복된 장면들이 성취된 것이다.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보증과 확신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조속한 도래에 대한 신앙인의 힘찬 소망이 아로새겨져 있다.
- 질문: 이 세상의 최종 목적지는 어떤 곳인가? (20장)
- 생각하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신의 행실을 깨끗이 함으로써 신랑되신 주의 오신 날을 예비하고 있는가?(21:1-2절)